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김 영 아**

한부모 가구주는 한부모가 된 이후 어떠한 커리어를 가지나?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특성의 성별 차이 분석하고,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남성은 한부모가 된 이후에도 종사상 지위에 변화가 없거나, 취업자로서 일자리만 변화였다. 하지만 여성 한부모는 비취업자에서 일부 상용직으로 진입에 성공하지만, 다수는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에 노출되거나 다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이 빈번하였다. 가족 해체 이전의 상용직 근무 경력은 한부모 이후 안정적인 커리어 획득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부모 가구주의 직업능력 개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개별화된 노동시장 경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어 플랜을 설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한부모 가구주는 한부모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부모 가구주의 고용변화에 관한 연구는 이혼 및 사별 등 가족해체를 통한 한부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두 가지 가설로 고용변화를 설명한다. 첫째, 경제적 필요 가설(economic necessity hypothesis)은 한부모 가구주가 가족해체 이후 줄어든 가구 소득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한다(Tamborini et al., 2015; Thielemans and Mortelmans, 2022). 둘째, 사회학적 관점에 기반한 잠재적 박탈 가설(latent-deprivation model)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체성 등 비경제적인 이유로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변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 이 글은 김영아(2023),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의 제3장(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youngakim@kli.re.kr).

(Thielemans and Mortelmans, 2019).

그렇다면 한부모가 된 이후 어떠한 커리어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이는 해외 연구에서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로, 종단적 관점에서 한부모가 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사상 지위(Zagel, 2014), 직업 소득수준(Kalmijn, 2005), 근로시간(Thielemans and Mortelmans, 2019), 근로소득(Tamborini et al., 2015; Brüggmann and Kreyenfeld, 2023)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양부모 가구주와 비교하여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뿐 아니라(Kalmijn, 2005; Tamborini et al., 2015), 한부모 집단 내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격차도 확인하였다(Zagel, 2014). 이들 결과는 한부모 가구가 되기 이전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이 한부모 가구가 된 이후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맞벌이 부부에서 한부모 가구주가 된 경우는 홀벌이 가구에서 한부모가 된 경우에 비해 소득변화가 적다는 결과(Brüggmann and Kreyenfeld, 2023)로 나타나 가족해체 이전 가구 내 생계부양 모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이와 유사하게 Thielemans and Mortelmans(2019)는 한부모 가구가 되기 전 경제활동 참여 강도가 높았을수록 한부모 이후 노동시장 참여 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부모 가구주가 되기 전 개인의 노동시장 경력에 따라 한부모가 된 이후 개인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기존 연구는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다양성, 그리고 한부모 가구 이전의 노동시장 경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부모 가구가 되기 전 특정 시점에서 경제활동 지위만을 단편적으로 반영하였다. 한 개인의 노동시장 경력의 특성은 특정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지위뿐 아니라 그 개인이 노동 생애 초기부터 현재까지 축적하며 쌓아온 직업력의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 이혼 시점에 상용직의 지위를 가졌을지라도 노동 생애 전반에 걸쳐 쌓은 직업력이 일용직 위주의 경력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시장 경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직업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노동시장 이행 변화를 노동시장 참여 강도 또는 소득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어떠한 종사상 지위 변화를 겪는지 살펴보기 못하였다. 근로시간의 증감과 이로 인한 소득의 변화 추적을 통해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 강도를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이동인지, 비임금근로로의 이동인지에 대한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른 경로 분석은 불가능한 한계점을 가진다.

셋째, 주로 여성 한부모 가구주에 국한하고 있다. 가족해체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 행태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는 경제적 이유로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남성 한부모 가구주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한부모가 되기 이전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해 왔을 가능성이 크기에 한부모가 된 시점 이후 노동시장 내에서의 종사상 지위 변화는 여성과는

다른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남성 한부모 가구주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구주가 되기 이전 생애 전반에 걸친 개인 직업능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 한부모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변화에 초점을 둔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1~24차 자료(1998~2021)를 바탕으로 사건배열분석(sequence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여,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다항로지트분석을 이용하여 어떠한 개인 및 가구 특성 요인이 한부모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1차(1998)부터 24차(2021)까지 총 24년 자료를 활용한다. 본 분석의 대상자인 한부모 가구주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주이다. 24년간의 조사에서 별거를 포함하여, 이혼과 사별 상태로 가구주이면서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624명으로 총 2,536개의 관측치(person-year observations)가 확인되었다. 본 분석은 한부모가 되기 이전과 이후 시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Thielemans and Mortelmans, 2019)에서 사용한 관측 기간을 따라, 본 연구의 관측 기간은 한부모가 되기 1년 전과 이후 3년을 추적하여 총 4년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한부모가 되기 이전과 이후의 경제활동, 개인 및 가족 특성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노동패널 조사 시작 이전부터 한부모였던 가구주는 필요한 정보가 부재하여 분석에서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한국노동패널 조사 기간 동안 한부모가 되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진 229명이 4년간 만들어 낸 916개의 관측치가 최종 분석 대상이다. 이들은 4년 동안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며, 분석에 필요한 4년간의 경제활동 상태와 개인 정보를 결측 없이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한부모 가구주의 한부모가 된 시점 전후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건배열분석(sequence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사용한다. 사건배열분석은 한부모 가구주가 한부모가 된 시점 이후 일자리 변화를 상태의 동적 연속성으로 묘사하는 방법이다. 군집분석은 한부모 가구주들이 만들어 낸 일자리 배열 특성을 요약하며, 몇 가지 대표 유형으로 그룹화한다. 이 두 방법론을 통해 총 4년간의 한부모 가구주들의 노동시장 지위 배열을 유형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사건배열분석에서 한부모 가구주들의 노동시장 지위는 1년 단위로 비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임금근로자, 그리고 실업 상태로 총 6가지로 구분하였다.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 궤적을 유형화하는 첫째 단계는 한부모 가구주 개인들이 만들어 낸 배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배열 쌍들의 유사성은 다양한 알고리즘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하나의 배열이 다른 배열로 변환되는 데 최소의 비용(cost)이 드는 조합을 찾는 방법인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Algorithm)을 이용하였다. 한 배열을 다른 배열로 전환하는 비용이 적을수록 배열 간의 유사성이 높다. 연구자는 이러한 배열 전환에 필요한 각각의 작업인 대체(substitution), 삭제(deletion) 또는 삽입(insertion)의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군집분석은 군집 간의 분산을 최대화하며 군집 내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와드(War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동질적인 노동시장 경력 궤적을 생성하였다. 정확한 군집의 수를 선택하기 위해 객관적인 측정 방법인 Calinski-Harabasz index를 이용한다. 분석 결과 3개(Pseudo F =100.47) 또는 4개(Pseudo F =88.53)의 군집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가장 적합하게 나타났다. 3개의 군집 수는 일용직과 임시직 위주의 노동 경력을 쌓는 한부모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특히, 노동취약 계층으로서 어떠한 한부모가 불안정 일자리로 진입하는지를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이기에 이러한 형태를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상용직 위주, 임시 및 일용직 위주, 비임금과 비경제활동 등 각각의 경제활동 상태의 주요 형태를 잘 반영한 4개의 군집 수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 4개의 군집은 노동 궤적의 다양성을 잘 반영하면서도 노동 취약계층의 일반적인 노동시장 이행 패턴도 담고 있다.

2. 변수 측정

종속변수는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으로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일자리 정보는 매년 조사된 시점을 바탕으로 1년 단위로 측정된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종사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임금근로자는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였고,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상태로 구분하였다. 노동시장의 지위는 1 상용직 임금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3 일용직 임금근로자, 4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임금근로자, 5 실업자, 6 비경제활동상태로 총 6가지로 코딩하였다.

유형화 분석 이후 다항로짓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자 기술통계

변수		변수	
성별		현재까지 임금근로자로 총 근무경력	72.7개월
남성	43.7%	현재까지 비임금근로자로 총 근무경력	33.4개월
여성	56.3%	거주 주택	
연령	41.1세	자가	41.7%
교육 수준		전세	22.7%
고등학교 이하	75.0%	월세	25.4%
전문대 이상	25%	기타	10.1%
총 자녀 수	1.7명	지역	
15세 미만 가구원 수	1.24명	서울	15.7%
연 가구 소득	평균 2,669만 원	광역시	26.2%
현재까지 가진 총 일자리 수	4.38개	그 외	58.0%
현재까지 상용직으로 총 근무경력	57.5개월		
총 관측치(total person-year observations)		916	

주: 여부인 경우 더미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초통계량의 수치는 1로 코딩된 경우의 수치를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4차(1998~2021), 저자 작성.

III. 노동시장 이행 궤적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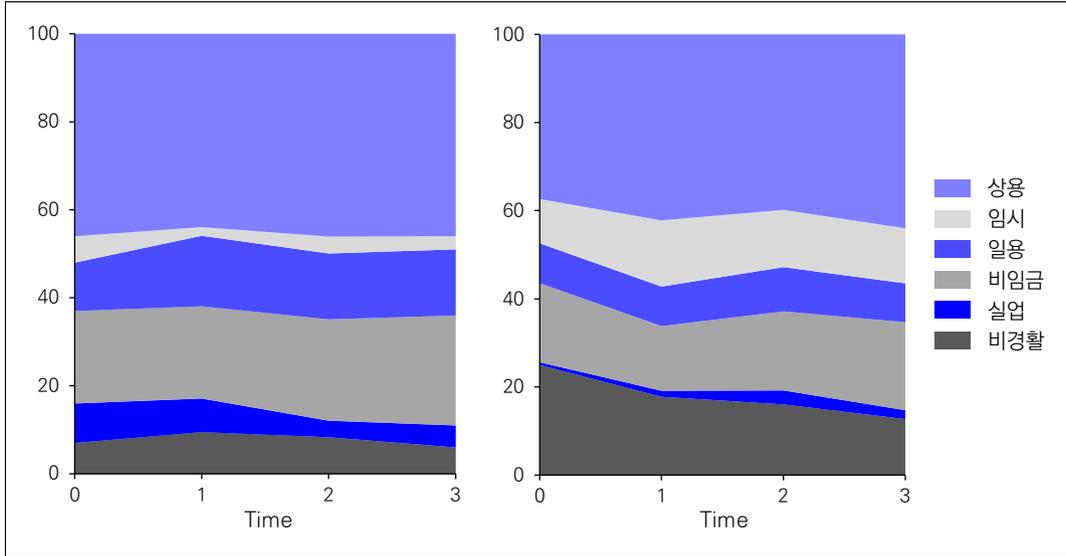
1. 한부모 전후 시기별 노동시장 지위 분포

한부모 가구가 되기 전후 총 4년 동안 분석 대상들의 노동시장 지위 분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는 개별 분석 대상자들의 노동시장 궤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 시점별 전체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지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부모가 되기 전 남성 한부모는 상용직의 비중이 제일 크고 다음으로 비임금, 일용직, 실업, 임시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 순으로 나타난다. 여성 한부모도 한부모가 되기 전 상용직의 비중이 제일 크지만, 비경제활동상태가 다음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 임시, 일용직 그리고 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한부모 가구주는 한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상용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와 실업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았다.

한부모가 된 이후, 남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와 상용직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실업의 비중이 줄어든다. 한부모가 된 초기 시점에 일용직의 비중이 다소 늘었으며, 시간이 지

[그림 1] 한부모 가구 전후 4년간 노동시장 지위 분포(왼쪽: 남성, 오른쪽: 여성)



주: 한부모가 되기 1년 전부터 이후 3년까지 총 4년의 기간이 x축에 나타남. 0은 한부모가 되기 1년 전 시점이며 1은 한부모가 된 시점, 그 이후 매년 1년씩 증가하여 3년까지 매년 관측된 노동시장 지위를 나타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4차(1998~2021), 저자 작성.

나면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한부모가 된 이후 비경제 활동상태가 꾸준히 감소한다. 한부모 초기 시점에는 임시직과 실업자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용직과 비임금근로, 그리고 임시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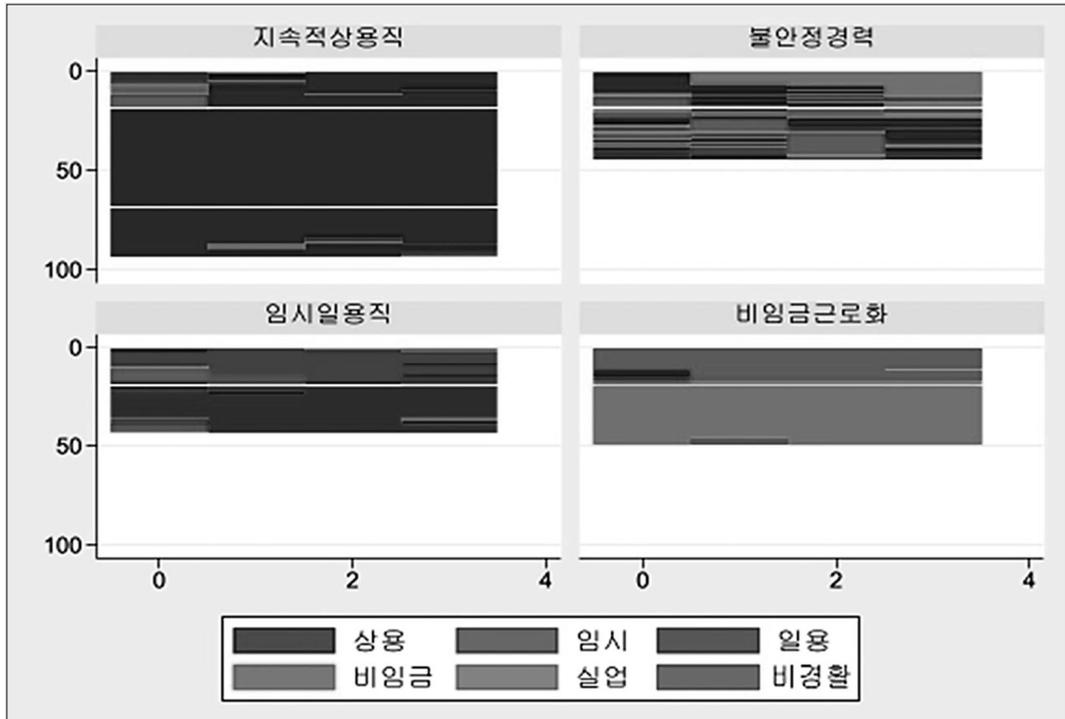
2. 한부모 가구 전후 4년간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도출한 한부모 가구 전후 4년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첫째, '지속적 상용직 유형'은 한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상용직으로 임금근로를 해왔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용직으로 일하는 유형이다. 둘째, '불안정 경력 유형'은 한부모 가구주가 되기 전후 4년 동안 종사상 지위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하나의 주요 일자리를 유지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바꾸어 불안정한 경력을 가진다. 상용직,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상태, 임시 및 일용직, 그리고 실업자 간의 상태 이동이 빈번하다. 셋째, '임시직과 일용직' 위주의 임금근로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한부모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임시 또는 일용직 일자리로 진입한 경우와 한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임시 또는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한부모가 되기 전에 노동시장 지위는 다양했지만, 한부모가

된 시점을 기점으로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비임금근로화'로 한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임금근로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임금근로가 아닌 비임금근로 또는 비경제활동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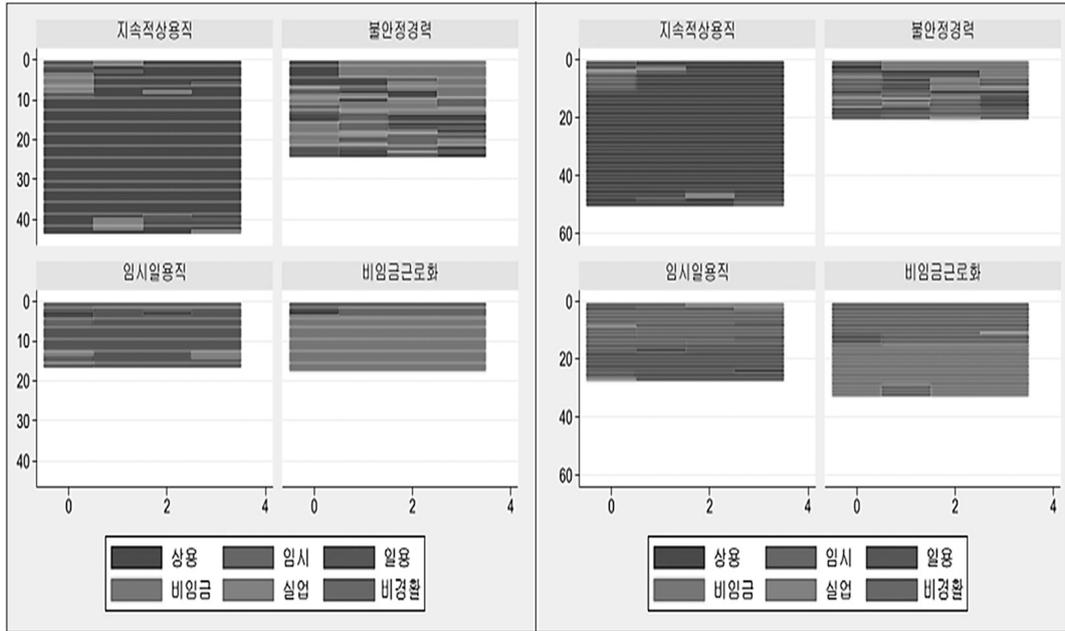
[그림 2] 전체 한부모 가구 전후 4년간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자료 : 한국노동패널 1~24차(1998-2021), 저자 작성.

성별로 구분하여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한부모가 되기 전부터 상용직이었던 비중이 제일 크다. 하지만, 상용직이 아니었던 다른 노동시장 지위에서 상용직이 된 경우를 보면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부모가 되기 전부터 상용직이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남성 한부모의 지속적 상용직 유형의 궤적은 비임금근로, 일용직 또는 실업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여성 한부모 가구주의 지속적 상용직 유형은 비경제활동상태 또는 실업에서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궤적이 뚜렷하다. 즉, 남성 한부모 가구주의 지속적 상용직 유형은 한부모가 되기 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노동 지위를 가진 근로자였다. 반면, 여성 한부모의 지속적 상용직 유형 중에는 한부모가 되기 이전에 노동시장 밖에 있었지만, 한부모가 된 시점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상용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림 3] 성별 한부모 가구 전후 4년간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왼쪽 : 남성, 오른쪽 : 여성)



자료 : 한국노동패널 1~24차(1998~2021), 저자 작성.

불안정 경력 유형은 남성 한부모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여성 한부모에게서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이다. 남성의 경우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비임금근로 간의 이동이 활발하며, 비경제활동상태는 이러한 이행 사이에서 드물게 관측된다. 하지만 여성의 불안정 경력 궤적을 보면 남성과 달리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그리고 비임금근로로의 이동이 활발하며, 이러한 궤적 사이에 비경제활동상태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즉, 남성 한부모의 경우 불안정 경력 유형은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 비경제활동 시기가 생겨나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 한부모 가구주의 불안정 경력 유형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겪는 다양한 일자리 이동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비임금근로화 유형은 여성 한부모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성 한부모의 경우 비임금근로 유형은 임시 및 일용직과 비슷한 비중으로 3번째 비중을 차지한다. 남성의 경우 주로 비임금근로로 자영업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지만, 여성의 경우 지속적으로 비임금근로로 일하는 경우와 함께 비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로 이분화되어 있다. 한부모 가구 전후 비경제활동상태를 꾸준히 이어가는 경우는 여성 한부모에서만 관측되는 특징이다. 또한 일용직이었다가 한부모 가구주가 된 이후 비경제활동상태를 이어가는 경우도 여성에게서만 관측되는 궤적이다.

임시 및 일용직 유형은 여성 한부모에서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성 한부모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이다. 남성 한부모의 임시 및 일용직 유형은 일용직 위주의 일자리 경력을 가진 경우이며, 한부모 가구가 되기 이전에도 일용직이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일한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임시직 또는 일용직으로 이행한 궤적을 보인다. 이는 남성의 경우 한부모 전 일용직이었던 일자리 특징을 유지한 것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한부모가 된 시점을 기점으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IV. 누가 불안정한 경력을 가지는가? 이행 궤적 유형의 결정요인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 결과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은 4가지 유형으로 요약되었다. 유형화의 성별 분포를 통해 유형별로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배열과 비중에 차이가 있음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다항로지분석을 이용하여, 성별을 포함한 한부모 가구주 개인의 인구학 및 사회학적 요인, 그리고 가족 요인이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항로지분석의 종속변수는 앞서 확인된 4가지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이다. 준거집단으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시장 궤적이라 할 수 있는 '지속적 상용직'을 설정하였다. 가장 안정적인 노동시장 궤적을 가진 경우와 비교하여 어떠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경우 불안정한 경력, 일용직 또는 비임금근로 궤적을 가지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오즈비(odds ratios)로 나타난다.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 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불안정 경력 유형보다 지속적 상용직을 가질 오즈가 2배 높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성별 분포에서 확인된 것처럼 남성의 불안정 경력 유형 비중이 높은 것이 관련이 있다. 불안정 경력 유형은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로 인한 지위 변화뿐 아니라, 노동시장 내에서 단기간에 종사상 지위가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궤적은 다양한 임금근로 또는 비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 여건이 갖춰진 개인에게서 생성될 수 있다. 여성 한부모의 경우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의 필요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단기간에 빈번한 일자리 이동을 거치며 불안정한 경력을 쌓기보다 상용직 지위를 유지하며 안정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지속적 상용직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비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지속적 상용직보다 불안정 경력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56%, 임시 및 일용직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80% 감소하였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속적

상용직 유형보다 불안정 경력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자녀 1명이 많아질수록 지속적 상용직 유형보다 불안정 경력 유형이 될 가능성이 43% 증가한다. 불안정 경력은 노동시장 내에서 빈번한 일자리 이동을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자녀가 많을수록 한부모 가구주는 상용직 일자리 지위를 지속해서 유지하기보다 단기간에 비임금, 임시 및 일용직, 그리고 다른 상용직 일자리로의 빈번한 이동을 경험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임시일용직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지속적 상용직 유형이 될 가능성이 1.5배 증가한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필요 등에 의해 임시 또는 일용직의 지위보다는 상용직 지위를 지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린 자녀는 상용직 유형보다 임시일용직 유형이 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15세 미만 자녀 1명이 증가할수록 상용직 유형보다 임시 및 일용직 유형이 될 오즈가 1.45배 증가하였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정 경력형 또는 임시 및 일용직형보다 지속적 상용직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비임금근로 유형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속적으로 상용직을 유지하기보다 비임금근로화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 되기 이전부터의 노동시장 경력이 한부모가 된 이후 노동시장 궤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업력 변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 이후 현재까지의 상용직 근무 경력이 길수록 지속적 상용직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상용직 근무 경력이 1개월 증가할수록 지속적 상용직 유형보다 불안정 경력 유형이 될 가능성이 0.02%, 임시 및 일용직 유형이 될 가능성은 0.07%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와 상관없이 임금근로 근무 경력이 길수록 지속적 상용직보다 비임금근로화 유형이 될 가능성이 0.03% 감소하였다. 하지만 임시일용직형이 될 가능성은 증가하였다. 즉, 임금근로에서 근무 경력이 길수록 한부모가 된 이후 임금근로 일자리 궤적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지만, 어떠한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며 경력을 쌓았는지에 따라 한부모가 된 이후 노동시장 이행 궤적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근무 경력이 길수록 지속적 상용직 유형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거주하는 집의 형태는 한부모 가구주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인 경우 자가에 비해 지속적 상용직보다 임시 및 일용직 유형이 될 가능성이 2.3배 증가하였다. 월세의 경우 지속적 상용직보다 불안정 경력형이 될 가능성이 1.95배 높았으며, 임시일용직은 2.96배 높았다. 지역과 관련하여, 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서울에 비해 지속적 상용직보다 비임금근로화 유형이 될 가능성이 2.72배 증가하였다.

〈표 2〉 전체 한부모 가구주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결정요인 다항로짓모형 추정(준거집단: 지속적 상용직)

	불안정 경력	임시일용직	비임금근로화
	exp(b)	exp(b)	exp(b)
남성(준거집단)			
여성	0.49 ** (0.12)	0.82 (0.24)	1.19 (0.34)
연령	1.01 (0.02)	1.01 (0.03)	1.02 (0.03)
고졸 이하(준거집단)			
전문대 이상	0.44 ** (0.13)	0.20 ** (0.10)	1.05 (0.32)
총 자녀 수	1.43 * (0.28)	0.63 * (0.15)	0.85 (0.20)
15세 미만 가구원 수	0.89 (0.16)	1.45 * (0.32)	1.04 (0.22)
가구 소득	0.99 ** (0.00)	0.99 * (0.00)	1.00 ** (0.00)
총 일자리 수	0.96 (0.04)	0.93 (0.05)	0.94 (0.05)
상용직 근무경력	0.98 ** (0.01)	0.93 ** (0.01)	1.01 (0.01)
임금근로 근무경력	1.01 (0.01)	1.05 ** (0.01)	0.97 ** (0.01)
비임금근로 근무경력	1.01 ** (0.00)	1.01 ** (0.00)	1.02 ** (0.00)
자기(준거집단)			
전세	1.32 (0.38)	2.33 ** (0.84)	0.63 (0.22)
월세	1.95 ** (0.56)	2.96 ** (1.08)	1.02 (0.36)
기타	1.34 (0.55)	4.85 ** (2.14)	2.19 * (1.03)
서울(준거집단)			
광역시	1.08 (0.38)	1.34 (0.53)	2.72 ** (1.29)
그 외	1.11 (0.35)	1.12 (0.41)	1.31 (0.59)
_cons	0.69 (0.73)	0.43 (0.53)	0.20 (0.24)
Log likelihood	-710.03008		
N	816		

주: * p<0.1, ** p<0.05, 괄호 안 표준오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4차(1998~2021), 저자 작성.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24차 자료를 이용하여, 한부모가 되기 1년 전부터 한부모가 된 이후 3년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특성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개인과 가구 요인이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 결과, 한부모 가구 전후 4년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은 '지속적 상용직 유형', '불안정 경력 유형', '임시직과 일용직 유형', '비임금근로화 유형'으로 유형화되었다. 성별 특성을 보면 지속적 상용직 유형은 남녀 한부모 모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남성과 여성 한부모 모두 지속적 상용직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한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상용직이었던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한부모 이후 상용직이 된 경로는 남성은 비임금, 일용직 또는 실업 상태에서 이동했지만,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서 이동하였다. 남성 한부모 가구주의 지속적 상용직 유형은 한부모가 되기 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노동 지위를 가진 취업자였던 반면, 여성 한부모의 지속적 상용직 유형 중에는 한부모가 된 이후 노동시장 밖에 있다가 상용직으로 진입하여 이를 유지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는 여성의 노동 생애에 있어 가족해체가 소리 없는 전환점이라고 한 Tamborini et al.(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불안정 경력 유형과 임시 및 일용직 유형에서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남성 한부모의 불안정 경력은 노동시장 내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간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궤적이지만, 여성 한부모에게 불안정 경력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상태가 되는 경로를 나타냈다. 남성 한부모에게 비경제활동상태는 일시적인 상태인 반면, 여성 한부모에게는 빈번하며 지속적인 상태였다. 이러한 비경제활동상태의 여성화는 비임금근로 유형에서도 확인되었다. 임시일용직 유형에서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 한부모에게 일용직 일자리는 한부모 이전부터 해왔던 일용직 커리어가 이어진 경우였지만, 여성 한부모에게는 비경제활동상태를 벗어나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일자리가 임시 또는 일용직 일자리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 전후 일자리 지위를 유지하거나 이동하더라도 취업자로서 지위 이동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성 한부모 중에서 한부모가 되는 시점에 노동시장 밖에 있던 비취업자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불안정 경력 또는 임시일용직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여성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 된 이후 바로 상용직으로 진입하여 지속적 상용직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어떠한 개인적 특성이 한부모들 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차이를 만들어 내

는 것인가? 다항로지분분석 결과, 높은 교육 수준이 지속적 상용직 유형이 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 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불안정 경력 유형보다 지속적 상용직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여성 한부모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상용직 일자리를 지속해서 유지하기보다 단기간에 노동시장 내에서 잦은 일자리 이동을 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15세 미만의 학령기 자녀는 한부모가 임시일용직 유형이 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자녀 돌봄에 요구되는 시간이 많다. 한부모 가구주의 경우 배우자의 지원 없이 홀로 자녀를 돌봐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시간 사용이 유연한 임시 또는 일용직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축적된 상용직 근무 경력이 길수록 한부모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 상용직 유형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지만, 임시 및 일용직 경력을 포함한 총 임금근로 경력이 길수록 임시일용직형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 되기 이전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근로 경력에 따라 한부모가 된 이후 임금근로로의 일자리 이동 궤적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비임금근로 근무 경력이 길수록 비임금근로화 유형이 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남성 한부모는 한부모가 된 이후에도 이전 일자리 지위를 유지하거나 노동시장 내에서 취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하며 일자리 변화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여성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 된 시점에 노동시장 밖에 있던 비취업자의 경우는 일부 상용직으로 진입에 성공하지만, 다수는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에 노출되거나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동을 빈번하게 경험하였다. 여성 한부모가 되기 이전 생애 동안 축적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의 커리어는 한부모가 된 이후 지속해서 상용직으로 커리어를 이어 가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한부모 가구주의 직업능력 개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 생애 초기부터 축적한 커리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어 플랜을 설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KLI**

[참고문헌]

- Brüggmann, D. and M. Kreyenfeld(2023), "Earnings Trajectories After Divorce: The Legacies of the Earner Model During Marriag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2(2), p.23.
- Kalmijn, M.(2005), "The Effects of Divorce on Men's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Histo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21(4), pp.347~366.
- Tamborini, C. R., K. A. Couch, and G. L. Reznik(2015), "Long-term impact of divorce on

women's earnings across multiple divorce windows: A life course perspectiv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26, pp.44~59.

Thielemans, G. and D. Mortelmans(2019),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fter Divorce: How Employment Histories Matter,"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40(2), pp.180~193.

_____ (2022), "Divorce and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Do women who expect an upcoming divorce increase their employment? Evidence from Flanders," *Acta Sociologica* 65(1), pp.3~23.

Zagel, H.(2014), "Are All Single Mothers the Same? Evidence from British and West German Women's Employment Trajecto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1), pp.49~63.